

20년째 북한경제 연구를 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자료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물론 통계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는 경제학의 특성상 자료의 부족은 분명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이 괴로움의 원천은 아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결하듯, 통계가 부족하다고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통계가 존재하는 분야의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예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가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목적은 북한경제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보다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안이나 대북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데에도 있으므로 자료의 부족이 연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문제로 작용하지 않는다. 마치 몇 군데 빈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림의 전체적인 모양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적어도 그 정도의 통계와 정보는 존재한다.

정작 괴로움은 북한경제가 늘 ‘그 모양 그 꼴’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물론 북한경제라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7·1 조치도 있었고 종합시장 설치를 허용하는 조치도 있었다. 화폐개혁도 있었고, 심지어 남한에 ‘경제고찰단’을 파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는 북한 경제체제 내에서의 개선(improvement within the system) 노력에 불과할 뿐,

체제 자체의 개혁(reform of the system) 조치는 아니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래서 늘 같은 북한경제, 변화하지 않는 북한경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자니 힘들고 괴로웠다. 연구의 새로운 주제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무섭게 변하고 있고 베트남도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북한만은 여전히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연구자에게 시련이었다. ‘탈북’은 북한주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나도 ‘탈북’을 꿈꾸었다.

단순히 연구자로서의 괴로움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21세기 분단 조국을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서도 괴로웠다. 세계는 이미 ‘글로벌 시대’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정도로 변화했는데, 북한은 21세기는커녕 아직 19세기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저런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세습도 우습지만, 세습을 한다고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북한의 미래는 결국 우리의 미래인데, 저런 북한을 그냥 두고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민은 당연히 북한의 발전전략이라는 화두로 옮겨갔다. 북한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핵만 포기하면 되는 것인가? ‘선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저 개방하고 개혁만 하면 생존은 가능한 것인가? 일단 생존만 하면 정상국가, 선진국가로의 발전은 보장되는 것인가? 대체 북한의 21세기 발전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문제에 도전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 근무하던 2001년 여름, 다음 해의 연구 주제를 북한경제의 발전전략으로 선정했다. 어차피 변화하지 않는 북한에게 개혁개방하라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고, 북한도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다만 북한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외교적 환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변화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내가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수석이라면”이라는 가정 하에 북한경제에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기획 의도였다.

물론 혼자 수행하기는 벅찬 주제였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장이었던 나는 우선 정부의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상 현안업무에 바쁜 정부로서는 이러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과도 접촉하였으나, 이들 역시 당시 시점에서는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제금융기구가 북한경제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임박하였다는 신호로 오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할 수 없이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연구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의 결과는 2002년 말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450쪽이 넘는 정도로 나름 정성을 기울인 연구였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북한경제의 발전전략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서는 최초라는 보람도 있었지만 허전함이 남는 연구였다. 연구의 핵심 결론으로 시장경제인 경제특구와 계획경제인 내륙경제를 분리 운영하면서 점차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점-본토 성장전략’이 북한경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이란 그를 뒷받침하는 정치·외교적 변화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탓이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한 정교한 분석은 경제학자의 연구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할 수 없

이 대외관계 개선과 신뢰성 있는 리더십 확보라는 두 가지가 필수적인 선결 과제라고 지적하는 데에서 그쳤을 뿐이다.

쫄쫄함이 늘 가슴 한 구석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서울대 외교학과 하영선 교수님을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한창 활동하던 무렵인 2008년 벽두의 겨울이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 이전부터 성함을 듣고 있었고, 2003년에는 평양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함께 참석해서 면식도 있었다. 오랫동안 하영선 교수님의 컬럼을 읽으며 경제의 상위구조인 국제정치에 대한 식견을 넓혀 왔던 탓에 그만큼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술잔과 함께 오고 가다가 북한의 미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다. 정확히는, 꺼냈던 모양이다. 너무 술에 취했던 탓인지 정작 나는 전혀 기억을 못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찍 하영선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미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밤새 머리를 맴돌았네. 그래, 바로 착수하세.”

하영선 교수님과 통화를 하면서 차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그냥 “알겠습니다. 바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라는 말 이외엔 드릴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우선, 내 마음 속에 《북한경제 발전전략의 모색》의 미진함이 강하게 남아있었던 모양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러기에 그렇게 취한 중에도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리라. 다음으로는, 하영선 교수님이 참여하신다면 제대로 된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단순히 경제 분야에서만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분야들을 망라해야만 제대로 된 북한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은 태동되었다. 2012년 북한은 강성대국을 건설했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진정한 의미의 강성대국 혹은 선진국가는 적어도 20년쯤은 흘러야 가능할 것이므로 2032년을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분야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인권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하영선 교수님의 ‘다보탑’ 이론에 따르면 정보기술, 문화, 환경 등의 분야도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한꺼번에 모든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구의 진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가 적절한 연구진을 찾기도 어려워 이번 작업에서는 일단 5개 분야만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바꾸어 말해 북한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보다 확대된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시작부터 분명히 한 셈이다.

제법 의욕적으로 출발했고, 출판까지에는 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현재의 정책기조인 ‘선군’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고 분야별 연구의 단순한 취합이 아니라 유기적인 결합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구의 결과가 우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야기했듯, 이번 연구는 북한의 미래 발전전략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시도라는 점에 더욱 의의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한 및 주변국가의 동시적 변화, 즉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 것도 이번 연구의 의의일 것이다.

연구의 추진 과정에서 동아시아연구원의 도움은 절대적이었다. 연구에 소요된 예산은 물론 연구 모임을 위한 장소 제공과 같은 다양한 행정적 지원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연구원의 도움 없이는 이번 연구가 결실을 맺지 못했을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이숙종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아시아연구원의 김하정, 백혜영 두 팀장도

고마울 따름이다. 특히 이번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최은혜 연구원이 보여준 정성 가득한 마음, 명석한 두뇌, 꼼꼼한 수고는 “내 땅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다.

마지막으로, 반쯤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연구의 중간 과정에서 동아시아연구원에 북한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나는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부담스러워 말고 싶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를 제대로 잘 끝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말고 나니 생각이 좀 달라졌다. 이왕 맡은 것이니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긴 것이다. 이 책자를 “EAI 북한연구시리즈 1”로 내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에 관한 연구물을 내놓게 될 것이다. 이번 연구는 물론 향후의 작업에 대해서도 많은 격려와 질책을 바란다.

연구진을 대표하여

2010년 11월

조동호